

종단 전법의 중요한 축... 새 진용 짚다

포교원, 어르신전법단 신설

5개 분야별 단장 새로 위촉

국제-계성·어린이청소년-성진스님
신도시-도봉·청년대학생-본공스님

종단의 계층별 직능별 포교조직인 조계종 전법단 내에 어르신전법단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5개 분야별 전법단장이 새로 위촉됐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어르신 신도시 청년대학생 국제 어린이청소년 등 5개 부문 신임 전법단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어르신전법단 초대 단장은 성운스님(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 이사)이 맡았다.

새로 만들어진 어르신전법단은 불교 노인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노인들의 신행활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어르신법회 거점사찰 선정 △지역별 합동법회 △기초교리교육 △수계식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등 문화여가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국제전법단장에 계성스님(강화 범왕사 주지), 신도시전법단장에 도봉스님(성남 원적정사 주지), 어린이청소년전법단장에 성진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상임이사), 청년대학생전법단장에 본공스님(한양대불교학생회 지도법사)이 새로 위촉됐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전법이 수행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조상에 게 효도하는 길이고 최고의 공덕을 닦는 길”이라며 “출가수행자 제1의 사명인 전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위촉식을 마친 뒤 전법단은 단장 가섭스님(포교원 포교부장) 주재로 2017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신년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조계종 전법단은 포교가 취약한 분야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서원 아래 지난 2010년 4월30일 출범했다. 이번에 어르신전법단이 추가됨에 따라 부문별 전법단은 △경찰 △병원 △군 △신도시 △청년대학생 △교정교화 △장

애인 △체육 △국제 △어린이청소년 등 총 11개로 늘었다. 포교원은 탈북자들을 포용하고자 상반기 내에 새터민전법단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법단에서 활동하는 스님과 불자들은 전체 600여 명이다. 포교사단과 함께 전법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된다. 전법단이 현장에서 실제로 포교하는 스님들과 재가 포교활동가가 함께 하는 출제가 연대조직이라면, 포교사단은 재가자들이 주축이 된 조직이란 것이 차이점이다. 특히 전법단과 연계된 포교활동은 종단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아 행정 포교자료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포교에 대한 원력을 가진 불자라면 누구나 전법단에 참여할 수 있다.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종단에서 위촉한다. 전법단장 가섭스님은 “불교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폭넓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법단이 선봉에 서겠다”며 “뜻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지금 100세 시대 노인이 포교 주체”

■어르신전법단 초대 단장 성운스님

어르신전법단 초대 단장에 위촉된 성운스님(사진)은 종단에서 내로라하는 노인복지 전문가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로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스님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를 위한 전법단이 필요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인들로 구성되는 미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청소년 포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노인포교”라는 지론이다. “법회에 참석하는 계층이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불교가 늙었다는 말을 하지만, 이



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평균수명이 100세를 상회하게 될 현실에서 이제 노인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처지나 소비층으로 머무르지 않는 양을 겁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생 동안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들이 당당한 주역이 되는 전법단에서는 정년퇴직한 지식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성운스님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평생 동안 갈고 닦은 능력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다”며 “사찰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인이 노인을 돕는 ‘노노(老老)’ 케어를 활성화하면서 어르신전법단의 내실을 다질 것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국회의장과 4당 원내 대표의 현재결정 승복 합의’와 관련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며 “현재 판결 이후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충분산성역화 원만성취 기원 전국비구니회, 3천만원 기탁

전국비구니회가 종단 핵심 과제인 조계종 충분산 성역화 불사에 정성을 보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기금전달식을 갖고 충분산 성역화 불사 기금 3000만원을 아람라운동행에 지정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회장 육문스님(사진)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금전달은 성역화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기원하며 회원 스님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이뤄진 것으로, 이날 스님들은 성역화 불사에 많은 중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국비구니회도 어려움이 많은데 성역화 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전국비구니회에서 기원해 주신 덕분에 성역화 불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성역화 불사가 원만 회향돼 조계사 일대가 한국불교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참해 주신 불사금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헌재 탄핵결정 승복합의는 현명한 판단” 총무원장 스님 정각회 신년법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13일 4당이 헌재 결정 수용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은 결정으로, 정치권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 부실장 스님, 정세균 국회의장 및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의원 등 정각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현 한국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헌재 결정 이후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금 한국사회 많은 갈등 중에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게 촛불과 태극기 집회”라며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 대표가 만나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고 근래 현명한 정치권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헌재 결정 이후 한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 정치권이 촛불과 태극기를 부추기는 모습만 보이는 점에 대해 걱정했다. 판결 후에 결과를 승복시키고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로 헌법준수를 위해 노력하는데 정치권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노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퇴피삼사(退避三舍)’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하며 정치권이 지금 가져야 할 자세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총통을 피해 물러나거나 양보한다는 뜻으로,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문공이 망명시절 초나라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군사를 3사(舍) 즉 90리나 후퇴시킨 것에서 유래한다.

총무원장 스님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여야가 퇴피삼사 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 여야 정치인들이 큰마음을 내서 헌재 판결 이후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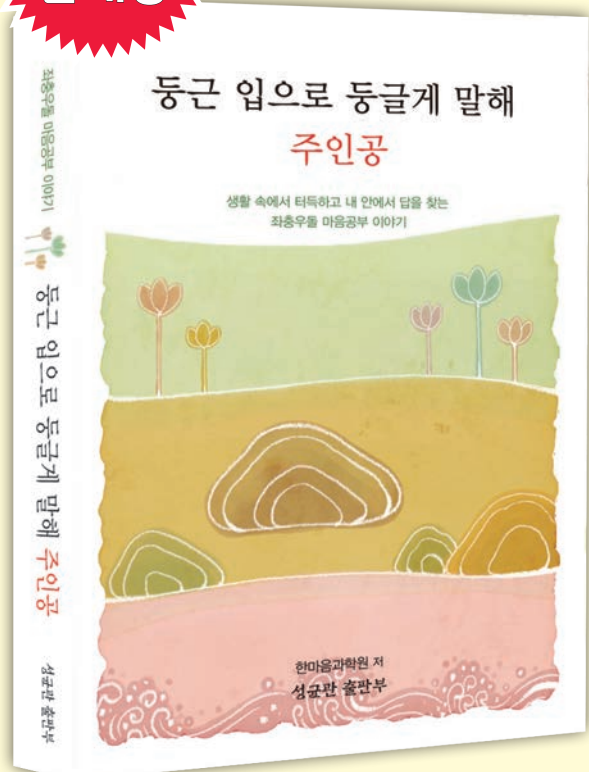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정각회장도 어려움 극복과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민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국가가 짐이 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앞으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도 “헌재 결정 이후 수습과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적인 파고도 잘 극복해 국가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허헌경 기자 eonardo@ibulgyo.com

전국유명서점에서

절찬
판매중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음공부

- 한마음과학원에서 10년간 실시한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들이 마음으로 써낸 수행일지의 정수
- 마음보기, 가족, 직장, 사찰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겪으며 주인공 관점으로 정진해 나가는 명쾌한 해결책
- 마음공부의 지혜, 사랑, 웃음과 눈물, 감동이 가득, 수행 재발심의 도우미

목차

- 1장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하여
- 2장 내 인생의 마음공부
- 3장 내가 바뀌어야 남도 바뀐다고?
- 4장 나로부터 나를 깨치는 가르침
- 5장 동근 입으로 동글게 말해, 주인공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교육안내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달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이다” - 대행선사 법어 -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러 놓아 원만하게 생활을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自性)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 수행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의 특징

- 3가지 주제
①주인공(主人公)에 믿고 맡기기
②지켜보기
③실천공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과 행선을 진행
- 생활 속 공부점검 :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마음공부로 풀어나가는 실천.
- 한마음으로 같이 공부 :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내주는 공생관(共生觀) 등, 일상의 문제들을 공부로 삼아 도반에게서 배우며 지혜와 자비의 길로 같이 성장.

27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모집

- 교육대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 교육일정 : 2017. 3. 18(토) ~ 5. 20(토) 총 10주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30~8:40 (오리엔테이션 오후 1시부터)
 - 교육장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 교육신청 : 인터넷 또는 방문
- NAVER 함께하는 진화 검색
- 문의 : 031)470-3200, 매주 월요일 휴무